

## 마 음 이 아 픈 아 이 들 , 세 상 밖 으 로 나 오 다



미래엔미소클럽은 2019년 아산재단의 지원을 통해 정신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신재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은 마음건강평화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은 청소년 정신재활서비스 ‘아프니까 인싸하자!’ 프로젝트를 통해 집에만 머물던 정신장애 청소년들을 보듬는다. 문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일상을 함께 누리자고 손을 내민다. ‘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자책하던 부모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해법과 희망을 얻는다.

###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행복한 동행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이 지역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란 쉽지 않다. 이웃의 편견과 낙인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성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센터를 운영해온 강미화 센터장은 정신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을 지켜본 강미화 센터장은 ‘성인이 된 이들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가 가진 장애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개입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있었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열이면, 열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친구가 없거나, 혼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자해를 하고 폭력

을 쓰는 등의 양상이 이미 나타났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정신장애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마저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개입했다라면 질환이 이토록 만성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미화 센터장은 10대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정신장애인의 일상적, 사회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봤다. 이들을 위해 구상한 청소년 정신재활 프로젝트는 2019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간, 시설, 프로그램, 운영진의 기틀이 마련됐다.

미래엔미소클럽은 지역사회와 학교에 프로젝트를 알리고 대상 청소년을 찾는 일부터 출발했다.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학교와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었다.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이미 자퇴한 아이도 있었다. 자살 시도나 자해 등으로 가정에서도 쉬쉬하며 손쓸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낮과 밤이 바뀐 채로 이불속으로만 파고들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을 모집한 후에는 초기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 사회재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했다. 마음 둘 곳 없어 집안에만 틀어박혔던 아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센터에 나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다. 놀이치료, 생활공예, 요리교실, 사회기술훈련, 텃밭 가꾸기와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 아이들은 표정부터 밝아졌다. 정신장애를 겪는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가족 캠프와 정기적인 부모 독서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과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서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시간은 참가자 모두에게 위로가 됐다.


### 한 아이의 미래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나타났다. 학창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로 매일 자기 팔목과 신체를 자해해온 청소년은 센터에 나온 이후 자해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 학교에서 소위 문제아였던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센터에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요리를 배우고 싶었던 그는 센터의 지원을 받아 요리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우는 중이다. 2년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자살 시도를 했던 청소년은 센터에 나와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올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강미화 센터장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혹은 과잉 행동을 한다는 아이들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환경이 아이의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지 들여다봐요. 치료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합니다”라고 말한다.

3년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남혜인 사회복지사 역시 변화의 이유가 많고 수용에 있다고 전한다.

“센터에 오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보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미약함 혹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감기를 앓으면 기침을 하듯 병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듣고 아는 과정이죠. 그동안 불편한 시선과 따돌림을 받았던 아이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면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미래엔미소클럽의 목표는 대구시에서 유일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을 설립하고 더 많은 아이를 품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아동·청소년 개인과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재활프로그램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포럼과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확장하는 일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글 박한나



정신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돕고자 미래엔미소클럽이 진행한 음악 창작활동.